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0월 2주 ~ 10월 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폴란드 경제 동향

○ Moody's, 국가신용등급 A3로 하향, 재정건전성 약화 지적(9.30)

- Moody's는 9.18일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으며, 이번 등급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Moody's는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 이자비용 상승으로 부채 상환능력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 호조기에 재정여력을 재축적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역량 및 의지가 약화된 점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제시
- 또한 정부와 대통령 간 정치적 대립 및 2027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의미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평가

○ 폴, 국가부채 이자비용 2030년 GDP의 3%에 근접 전망(9.30)

- 폴란드 재무부의 2027~2030년 공공부문 부채관리전략에 따르면 국고채무 이자비용은 2026년 GDP의 2.17%에서 2027년 2.43%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2.94~2.98%까지 확대될 전망
- 2027년 국가부채 이자비용 한도는 1,070억 즈워티로 설정됐으며, 2028~2029년에는 각각 GDP의 2.59~2.63%, 2.76~2.7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폴란드, 9월 물가상승률 4.0%로 상승(9.30)

- 폴란드 통계청(GUS)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0%를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0.1%p 낮은 수준
- 물가상승률은 7월 3.0% → 8월 3.4% → 9월 4.0%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

○ 4월 국민경제 중위임금 7,695즈워티, 전년 대비 6.0% 상승(10.7)

-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6년 4월 국민경제 월간 중위임금은 7,695즈워티로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
- 평균임금은 9,651.59즈워티로 전월 대비 0.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으며, 중위임금은 평균임금보다 20.3% 낮은 수준
- 전체 근로자 중 하위 10%의 임금은 4,806즈워티 이하, 상위 10%는 14,926즈워티 이상으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 폴 GDP 성장률 2026년 3.6%·2027년 2.9% 전망(10.7)

- 세계은행은 최신 보고서에서 폴란드 GDP 성장률을 2026년 3.6%, 2027년 2.9%, 2028년 2.7%로 전망
- 중부유럽 경제는 EU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27~2028년 평균 약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8월 실업률 3.4%, EU 최저 수준(10.6)

- Eurostat에 따르면 8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EU 27개국 중 체코(3.2%)에 이어 몰타·슬로베니아와 함께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EU 평균 실업률은 6.1%로 7월과 동일했으며, 전년 동월(6.0%) 대비 0.1%p 상승,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10.5%)로 나타남
- 통계청(GUS)은 별도 산정방식에 따라 8월 실업률을 5.8%로 발표했으며, 7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2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상반기 FDI 3.9% 감소, 지분투자 줄고 기업간 차입 확대(10.7)

- 2026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약 12.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
-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약 4.29억 달러로 3분의 1 감소, 기업 자본에 대한 직접투자도 약 2.31억 달러로 30% 감소한 반면, 외국 모기업·계열사 간 차입 등 기업내 부채거래는 5.43억 달러로 약 2배 증가

- 전쟁 장기화로 실질 생산설비·지분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차입 중심의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

○ **세계은행,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 4%에서 1.5%로 하향(10.8)**

- 세계은행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2027년 내내 지속된다는 가정을 반영해 우크라이나의 2027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4%에서 1.5%로 2.5%포인트 하향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1.2%로 전망함

○ **EU의 우크라이나 철강 쿼터 50% 이상 축소, 전쟁으로 위축된 철강 산업 회복에 부담(10.8)**

- 산업계는 EU가 우크라이나산 철강의 유럽시장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50% 이상 축소하며 우크라이나의 산업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
- 우크라이나의 철강산업은 전쟁 이전 GDP의 약 10%,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나 현재 주요 3개 철강기업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 EU의 신규 쿼터는 우크라이나산 완제품 철강 기준 약 105만 톤으로, 2025년 EU 수출량 약 263만 톤 대비 약 60% 감소
- 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의 전후 재건을 위해 단순 금융지원보다 EU 단일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과거 공급 수준에 상응하는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크라 정부와 EU 당국을 대상으로 쿼터 확대 협상을 추진 중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PGE Energia Ciepła, 크라쿠프 CHP 발전소 탈석탄 위한 가스 열병합 발전 설비 구축(9.24)**

- PGE Energia Ciepła는 크라쿠프 CHP 발전소에 총 100MWe·100MWt 규모의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설비를 구축하며, 1단계 사업에 약 866백만 즈워티를 투자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신규 설비 가동 시 연간 석탄 사용량 약 20만 톤 감축 전망, 2034년까지 추가 가스엔진·히트펌프·열저장시설 등을 구축, 석탄 사용을 중단할 계획

○ **Mirbud, 바르샤바공대 체육·엔터테인먼트 아레나 신축공사 수주(9.25)**

- Mirbud는 공공조달 절차를 통해 바르샤바 공대 'Syrenka' 경기장 내 체육·엔터테인먼트 아레나의 종합 시공사로 선정, 총 계약금액은 약 168백만 즈워티, 계약 체결 후 27개월 내 준공·시설 인도를 목표

○ ML System, 포드카르파츠키에 10MW 규모 에너지저장시설 2곳 구축 수주(9.25)

○ CPK, 바르샤바 - 우치 고속철도 핵심 구간 건설 경쟁입찰 본격화(9.28)

- CPK가 바르샤바 - 우치 고속철도(HSR) 중 공항 연결부와 Bolimów 연결부를 잇는 14.3km 구간 건설을 위한 경쟁적 대화 절차의 본단계에 5개 사업자(컨소시엄)를 선정
- 선정된 사업자는 ① Strabag·Tym-Bud, ② Torpol, Mirbud·Kobylarnia, ③ PORR·Trakcja, ④ Intercor·NDI·NDI Sopot, ⑤ Budimex이며, '26년 7월 총 19개사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CPK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
- 사업 범위는 설계·시공을 포함해 최대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 14.3km 건설, 도로·철도 교량 및 고가교, 배수시설·야생동물 통로 등 55개 구조물 건설, 약 30km의 도로 신설·개량 등을 포함하며, 시공사 계약은 2027년 4분기까지 체결할 계획

○ 폴 주요 국영기업, 대형 프로젝트 내 자국기업 참여 확대 및 현지 조달 강화 추진(9.28)

- 폴 주요 기업 Orlen, PGE, PZU, PKO BP가 '폴란드 공급업체 포럼'을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폴란드 기업의 조달·시공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 Orlen은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당시 현지조달 비중이 약 1%, 향후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이를 약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PGE 역시 배전 분야 등 일부 영역에서 현지조달 비중이 이미 85%를 상회하며, 폴란드 기업의 기술·사업 역량 향상에 따라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향후 10년간 에너지 전환·인프라에 약 1조 즈워티 투자 전망,

국내 산업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상(9.28)

- 폴란드 정부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인프라에 약 1조 즈워티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
- 현지조달(local content)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국내기업의 생산 규모, 금융·보증 및 신용도 확보, 인증 비용, 발주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이 지적되며, 현재 국내산 비중을 측정하는 통일된 기준도 부재한 상황으로, 행정·법률적으로 현지조달을 강제할 수단보다는 시장 관행과 발주 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PGE Energia Ciepła, 그디니아 가스 열병합발전설비 가동, 총 5.27억 즈워티 규모 에너지 전환 추진(9.28)**

- 폴란드 PGE Energia Ciepła가 그디니아(Gdynia)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 기반 열병합발전기 5기를 신규 가동. 총 발전용량은 49.9MWe, 열공급용량은 약 49.3MWt로, 기존 석탄발전 설비 일부를 대체하고 지역 난방공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
- 이번 사업의 로컬 컨텐츠는 68%로,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이 폴란드 경제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평가
- 동일 부지에서는 30MWt 규모 바이오매스 설비도 건설 중이며, 총 투자비는 약 5.27억 즈워티, 이 중 가스 열병합발전 및 관련 인프라에 약 3.37억 즈워티, 가스관 건설에 약 40백만 즈워티, 바이오매스 설비에 약 1.5억 즈워티가 투입

○ **PGE, 그리피노 CCGT 사업에 30.5억 즈워티 규모 대출 약정(9.29)**

- PGE 자회사 PGE Gryfino Dolna Odra가 BGK·PKO BP 컨소시엄과 30.5억 즈워티(약 1조원) 규모의 기간대출 계약 체결
- Tauron Polska Energia가 PKO BP와 9억 즈워티(약 3,000억원) 규모 대출계약을 체결, 기존 신디케이트론을 전액 재융자

○ **폴 정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최대 70% 전력비 지원 추진(9.29)**

- 폴란드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적격 전력사용 비용 중 최대 70%를 한시 지원하는 법안 초안 채택

- 재원 마련을 위해 매출 50백만 유로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며, 정부 작업계획상 해당 기업의 CIT는 2027년 30%, 2028년 26%, 2029년 23%로 조정 후 2030년 기본세율로 복귀 예정

○ Orlen, Energa 잔여지분 4.68%에 대한 강제매수 추진(9.30)

- Orlen은 Energa의 잔여 소액주주 지분을 대상으로 주당 27.60즈워티에 강제매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대상 주식은 총 3,229만9,946주로 Energa 전체 발행주식의 약 4.68%에 해당
- Orlen은 현재 Energa 지분 95.24%를 보유,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으로는 96.06%를 확보하고 있어, 이번 강제매수를 통해 잔여 주주 지분을 정리할 계획
- 이번 조치는 Orlen의 Energa 지분을 사실상 100% 수준으로 확대해 소액주주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향후 Energa의 소유구조 단순화와 Orlen 그룹 내 에너지사업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 폴 정부, 원전 프로그램 개정안 채택 및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착수(9.30)

- 폴 정부가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에 이어 개정된 폴란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PPEJ)을 채택하고 국가에너지정책(PEP) 수립 작업에 착수
- 정부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GW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
- 개정 PPEJ는 신규 원전 설비를 최대 9GWe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속 원전 건설 과정에서 폴란드 기업의 참여 비중을 최종적으로 최대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

○ CPK 고속철도, EU 지원 축소로 200억 즈워티 이상 재원 부족(9.28)

-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CPK(Port Polska) 고속철도 'Y선'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200억 즈워티 이상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
- 2024년 말 계획에는 2028~2034년 EU 기금에서 336억 즈워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인프라부는 실제 지원 규모가 100억~120억 즈워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전체 철도 부문 사업비 768억 즈워티 가운데 약 432억 즈워티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정부는 부족한 EU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

○ **Grupa Azoty Police 노조, 사측의 임금 150즈워티 인상안 거부(9.29)**

- Grupa Azoty Police 노사는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2027년 4월부터 기본급을 150즈워티 인상하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사측은 재무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며, EBITDA 목표 달성 및 2027년 9월까지 '노사 평화조항' 유지 등을 임금 인상의 조건으로 제시

○ **Greenvolt·Statkraft, 폴 400MW 규모 BESS 10년 운영계약 체결(9.29)**

- Statkraft와 Greenvolt Power가 폴란드 내 2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프로젝트 총 400MW에 대한 10년간 톨링(tolling) 계약을 체결했으며, EU에서 공개된 BESS 관련 계약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짐
- 대상 프로젝트는 Elk와 Turosn Koscielna에 각각 200MW/800MWh 규모로 건설되는 4시간형 배터리로, Statkraft가 전력 및 유연성 시장에서 충·방전 시점을 결정하고 Greenvolt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

○ **Tauron,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 4곳을 가스·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거점으로 전환 추진(10.1)**

- 폴 에너지기업 Tauron은 Jaworzno·Siersza·Łaziska·Łagisza 등 기존 석탄발전소 4곳의 전력망 접속망·부지·기반시설을 활용해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폐기물에너지 및 산업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투자계획을 추진
- Jaworzno에서는 시 정부와 폐기물 열처리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전력·열 생산 및 지역 난방망 확대와 연계할 계획
- Jaworzno에는 폐기물에너지 시설 외에도 315MW급 가스터빈 2기, 추가

가스발전 설비(약 400MW·140MW), 신규 열원,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 수소 생산시설 및 110kV 변전소 등 총 8개 사업을 검토·추진 중

- Siersza·Łaziska·Łagisza에서도 최대 630MW급·약 400MW급 가스발전, 에너지저장시설, 태양광 및 폐기물에너지 시설 등을 추진하고 일부 유휴부지는 산업시설·데이터센터 등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활용할 계획
- Tauron은 신규 설비가 구축될 때까지 기존 석탄발전소의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부 석탄발전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 수요에 따라 2029~2030년 이후까지 운영하고 Jaworzno 910MW급 발전기는 용량시장 계약에 따라 장기 운영을 추진할 계획

○ 폭스바겐, Września 공장에 차세대 전기 Crafter 생산시설 증설, 2027년 하반기 완공 예정(9.30)

- Volkswagen은 폴란드 브제시니아(Września) 공장에 차세대 전기 Crafter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시설 2개 동을 건설 중, 총 투자 규모는 약 15억 즈워티로 2027년 하반기 완공 예정
- 신규 시설의 총 면적은 약 6만㎡로, 한 개 동은 차세대 전기 Crafter 생산라인, 다른 한 개 동은 배터리 보관 및 물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기 상용차 생산 역량 확대와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VWP는 9천 명 이상을 고용하는 지역 최대 고용주로, 차량 부품 물량 기준 약 70%를 폴란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이번 증설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및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폴란드, 국가재건계획(KPO) 투자금 전액 집행, 에너지·교통·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투자 확대(9.30)

- 폴 정부는 국가재건계획(KPO)의 전체 투자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발표, 마지막 55억 즈워티 규모 지급 신청을 완료해 해당 자금은 연말까지 폴란드에 유입될 예정
- KPO를 통해 에너지·대중교통·철도·보육시설·학교 에너지효율 개선 및 초고속 인터넷 구축 등에 약 120만 건의 계약을 체결
- 폴란드는 KPO를 통해 총 약 2,330억 즈워티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보조금 1,070억 즈워티와 우대대출 약 1,260억 즈워티로 구성

○ 폴란드, 美 Westinghouse·Bechtel과 원전 EPC 본계약 협상 진행(10.1)

- 폴 정부는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Bechtel 컨소시엄과 첫 원전 건설을 위한 EPC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22개 핵심 상업조건에 합의하고 세부 조항 및 부속서 협상으로 단계가 진전
- 당초 2026년 말까지 잔여 조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특정 시한에 맞춘 계약 체결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
- 폴란드 측은 사업 일정과 시공사를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세부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있어 협상 여건이 쉽지 않다는 입장, 특히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양측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Northland Power, 폴란드 에너지저장시설 2곳 건설에 약 5억 즈워티 금융조달 완료(10.1)

- 캐나다 에너지기업 Northland Power은 폴란드 카미온카(Kamionka) 및 미에치스와부프(Mieczysławów) 에너지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약 5억 즈워티 규모의 금융조달을 완료
- 두 프로젝트는 폴란드 국가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으로부터 총 약 2.8억 즈워티의 보조금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캐나다·폴란드 금융기관 자금 및 자체 자본으로 조달

○ **폴란드-슬로바키아 가스관, 완공 후에도 가동률 저조, 슬로바키아의 폴란드산 가스 도입 제한으로 인프라 활용도 미흡(9.29)**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약 100백만 유로 규모의 가스수송관이 건설됐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해당 가스관은 양국의 가스 공급망 안정성 및 공급원 다변화를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폴란드 입장에서는 LNG 터미널과 Baltic Pipe를 통한 공급망을 활용해 비상시 슬로바키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연결망으로 평가됨
-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는 현재 주로 남부 방향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폴 연결망을 통한 가스 도입에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폴란드 경유 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

○ **Trakcja, 구조조정 금융 전액 상환 및 10억 즈워티 이상 신규 금융 확보, 철도 중심 수주 확대와 도로사업 다각화 추진(10.1)**

- 폴란드 인프라 건설사 Trakcja가 기존 구조조정 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Bank Pekao·Bank Millennium·PKO BP와 총 3억 즈워티 규모의 신규 금융약정을 체결
- 은행대출 1.3억 즈워티와 선급금 보증한도 1.7억 즈워티에 더해 보험 보증한도 7.33억 즈워티를 확보하면서 총 10억 즈워티 이상의 금융·보증 한도를 마련했으며, 약정은 2028년 말까지 유효

○ **폴 에너지업계, 'Local Content' 확대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요구, 대형 사업 분할·비가격 평가 강화 필요(10.2)**

- 폴란드 에너지업계가 Local Content(현지조달·현지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및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현재 입찰에서 가격 중심 평가 비중이 높아 현지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업계는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가격 외에 현지 공급망·기술역량·경제적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비가격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이 입찰 평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독일 환경단체, Świnoujście 인근 해상 석유 시추 재개에 반발, 및 환경 우려 제기(10.2)**

- 캐나다계 Central European Petroleum(CEP)이 폴란드 Świnoujście 인근 발트해에서 탐사 시추를 재개했으며, 독일 환경단체들은 석유·가스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약 8.8만 명의 서명을 확보
- CEP는 Wolin 광구에 석유 22백만톤 이상 및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천연가스 50억㎥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개발 시 폴란드 연간 수요의 4~5%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번 시추는 당국이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한 두 번째 탐사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작업에는 수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상업생산 개시는 이르면 2028~2029년으로 전망

- 한편 독일 측은 시비노우이시치에 컨테이너항 건설사업에도 환경·해저 생태계 영향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이 9월 말 관련 소송을 기각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 폴란드 우체국, 10억 즈워티 이상 규모 Orlen Paczka 인수 추진, Allegro도 관심, 정부는 우체국 인수 선호(10.2)

- Orlen은 Orlen Paczka 매각을 추진 중이며, 전체 지분 가치가 10억 즈워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당초 지난해 Poczta Polska와 예비협약을 체결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무산된 바 있음
- 국유자산부는 Orlen Paczka를 Poczta Polska에 매각해 국가 물류 사업자를 육성하고 우편·택배 시장에서 Poczta Polska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 중
- Poczta Polska는 현재 Orlen Paczka 지분 100% 인수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반면, 실제 인수를 위해서는 외부 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 Allegro도 Orlen Paczka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llegro는 자체 One Box를 2026년 말까지 1.2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Orlen Paczka의 약 8,000개 무인택배함·1.5만개 이상 접점은 자체 배송망 확대에 활용 가능함

○ 폴란드 환경부, 약 1.8억 유로 규모 'Green Transformation' 지원 프로그램 출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집중 지원(10.2)

- 총 약 8억 즈워티 규모로, 2021~2028년 유럽경제지역(EEA)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하며, 기후보호, 에너지 관리, 자연보전, 순환경제를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

○ 폴란드, 약 120km 규모 신규 고속도로 건설 추진 및 도로망 완성 단계 진입(10.5)

- 폴란드의 전체 계획 고속도로망 약 2,100km 중 현재 약 1,950km가 구축되어 약 150km가 남은 가운데, 주요 미완성 구간인 동부 A2

연장 및 바르샤바 광역 우회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

- 폴란드 정부는 EU 가입 전 약 485km에 불과했던 고속도로망을 대폭 확충해 왔으며, 향후 남은 핵심 구간 건설에는 수십억 즈워티 규모의 투자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Tauron, 폴란드 Myślibórz 21MW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수(10.5)**

- Tauron의 재생에너지 자회사 Tauron Zielona Energia는 북서부 폴란드 Myślibórz 풍력발전 프로젝트 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총 21MW 규모로 건설될 예정

- 해당 풍력단지는 Vestas V126 풍력터빈 6기(각 3.5MW)로 구성되며, 프로젝트를 개발·건설 준비한 덴마크계 재생에너지 기업 European Energy로부터 사업권을 인수

- European Energy는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매각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을 통해 폴란드 내 추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발전용량 확대에 집중할 계획

○ **폴란드 Brzesko, 바이오매스·가스·열병합발전 결합한 현대식 열공급 설비 가동(10.2)**

- Brzesko 지역난방공사(MPEC Brzesko)는 바이오매스·가스 및 고효율 열병합발전(CHP)을 결합한 40백만 즈워티 이상 규모의 신규 열공급 설비를 가동하며 지역 난방시스템 현대화를 추진

- MPEC Brzesko는 전체 생산 열량의 최대 5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 난방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

○ **Grupa Azoty Police, Polimery Police 투자 부담으로 재무위기 심화, Orlen 인수에 기대(10.4)**

- Grupa Azoty 계열 Police 화학공장은 대규모 부채, 노후 설비, 투자 부족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 80억 즈워티 규모로 확대된 Polimery Police 프로젝트의 부채와 손실이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Police는 2026년 상반기 매출 13.61억 즈워티, 영업손실 775.8백만 즈워티, 순손실 37백만 즈워티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영업손실은 약 7배, 순손실은 4배 이상 감소하고 현금흐름도 흑자로 전환되는 등 일부 실적 개선이 나타남
- Police는 Polimery Police 지분 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투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후원사업 등을 축소하고 설비 보수 및 임금에 자금을 우선 배분하는 등 긴축경영을 추진
- 직원들은 과거 단체협약 일부 조항 중단으로 약 30%의 임금 감소가 발생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현재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
- 핵심 해결책으로 Orlen의 Polimery Police 인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인수 완료 시 Police의 투자 관련 재무부담이 완화되고 증기·용수·전력 공급 및 항만 서비스 등 연계사업을 통해 기존 화학공장의 수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Polimery Police는 당초 약 17억 즈워티 규모로 계획됐으나 투자비가 80억 즈워티 수준까지 확대된 뒤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Orlen 인수 성사 여부와 함께 Police 및 Grupa Azoty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 현대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시비노우이시치에(Świnoujście) 'Pomerania Cape' 186ha 신규 부지 조성사업 발주 추진(10.6)

- 폴란드 인프라부는 10월 말~11월 초 186ha 규모의 신규 부지를 조성할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조성된 부지에는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 'Pomerania Cape'는 발트해 주요 항만개발 사업으로, 186ha 신규 매립지와 약 3km 규모의 부두·방파제, 17m 수심의 항만 수역 등을 조성하고, 핵심 시설로 1.3km 길이의 컨테이너 부두와 연간 2백만 TEU 처리능력의 심해 컨테이너터미널을 구축할 예정
- 신규 터미널은 폴란드뿐 아니라 독일·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중부유럽 배후시장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며, 민군

겸용(dual-use) 항만으로 개발

- 사업비 중 Szczecin·Świnoujście 항만공사가 담당하는 항만시설 건설비는 약 15억 즈워티로 예상되며, 47ha 이상의 배후부지에 철도·도로망을 추가 구축하고 3km 이상의 접근 철도선과 약 2k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

○ **EDF, 폴란드 제2원전 후보지 Konin 입지 타당성 긍정 평가, 2027년 사업 파트너 선정 추진(10.5)**

- 프랑스 원전기업 EDF는 폴란드 제2원전 후보지인 Konin에 현재까지 원전 건설을 저해할 요인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최종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입지 관련 자료를 확보 중
- EDF는 Konin과 Bełchatów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원전 건설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최종 입지는 폴란드 정부가 결정할 계획
- 폴란드 정부는 2027년 제2원전의 전략적 파트너 및 기술·시공 주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 미국·프랑스·캐나다 기업들과 사업비 조달, 국내 산업 참여, 기술이전 등의 조건을 협의 중
-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획에 따르면 2027년 기술·사업 파트너 선정, 2032년 착공, 2040년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며, 제2원전의 우선 후보지는 Konin과 Bełchatów로 압축된 상황
- Konin은 자연호수, 폐광 수역, 바르타강 및 예지오르스코 저수지 등 다층적인 수자원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원전 냉각용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정치권에서도 Konin을 유력한 입지로 평가하는 분위기

○ **Budimex 컨소시엄, 체코 D35 고속도로 PPP 사업 최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127.6억 즈워티 규모(10.6)**

- 체코 교통부가 D35 고속도로 PPP 사업 경쟁대화 절차에서 Budimex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제안을 가장 유리한 제안으로 선정했으며, 제안 금액은 약 713억 체코코루나(약 127.6억 즈워티) 규모

○ **GDDKiA, 홍수 피해 입은 루부스키에주 DK12 구간 현대화 사업 입찰 개시(10.6)**

- 폴란드 국가도로청(GDDKiA) 지엘로나구라 지부가 2024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슈프로타바(Szprotawa)-비에흐리체(Wiechlice) 간 DK12 국도 1.6km 구간의 현대화 공사 입찰을 발표

○ EU 집행위, MAN 폴란드 공장 증설 관련 공공지원 재원 불허(10.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MAN Truck & Bus의 폴란드 Niepołomice 공장 증설에 대해 폴란드 정부가 제공하려던 116.3백만 즈워티 규모의 공공지원 지급을 불허
- 지원 규모는 ▲법인세 면제 105.60백만 즈워티 ▲직접 보조금 10.73백만 즈워티였으나, EC는 폴란드가 해당 지원이 MAN의 투자입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센티브 효과(incentive effect)'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MAN의 Niepołomice 공장 투자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며, MAN은 2038년까지 약 12억 유로를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능력 확대할 예정

○ EU 집행위, 2040년까지 유럽 통합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국경 간 상호운용성·투자협력 강화 필요(10.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40년까지 EU 수도 및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는 통합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 철도를 단거리 항공편의 대체 수단으로 육성해 유럽의 경제성장·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
- 고속철도망은 TEN-T(유럽횡단교통망)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열차 운행 속도를 200km/h 이상, 장기적으로 300km/h 이상으로 높여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예정

○ 폴란드 첫 원전 프로젝트 실사 착수, 대출계약 준비 본격화(10.7)

- 폴란드 첫 원전사업 시행사 PEJ(Polskie Elektrownie Jądrowe)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착수, ENCO·ERM·Howden이 참여해 기술·환경·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 이번 실사는 금융기관 제출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실사 완료 후 선정된 금융기관들과 원전 프로젝트의 대출(Loan) 관련

금융문서 협의 및 작성을 본격화할 계획

○ **CPK, Budimex와 하수 집수관·펌프장 설계·시공 계약 체결(10.7)**

- CPK(Port Polska)는 중부공항 건설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Budimex와 하수 집수관 및 펌프장의 설계·시공, 공항 개장 전까지 유지·운영을 포함한 계약 체결
- 계약 최대 규모는 5,406만 즈워티이며, 해당 시설은 공항 건설기간 중 사업부지의 하수를 처리하고 공항 운영 개시 이후에도 공항시설의 하수 처리에 활용될 예정
- Budimex는 상세설계, 시공, 사용승인 취득을 수행한 뒤 공항 개장 시점까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

○ **Tauron, 910MW Jaworzno 발전기 대규모 개보수 완료(10.8)**

- Tauron은 폴란드 Nowe Jaworzno 발전소의 910MW급 발전기에 대해 2.9억 즈워티 규모의 첫 대규모 개보수를 완료하고 국가전력망에 재연계

○ **폴란드 태양광 발전 11일 연속 출력제어, 35.3GWh 전력 미계통(10.8)**

- 폴 전력망운영사(PSE)는 9월 26일~10월 6일 11일 연속 태양광 발전에 비시장적 재급전(non-market redispatching)을 실시했으며, 출력제어 규모는 총 약 35.33GWh로 집계, 순간 최대 출력제어량은 10월 5일 1,421.6MW에 달했으며, 풍력 발전도 약 5.52GWh가 추가로 제한됨

○ **GDDKiA, S17 자모시치~토마슈프 루벨스키 구간 시공 지연에 28일 내 공사 정상화 요구(10.8)**

- 폴 국가도로청(GDDKiA)은 S17 자모시치 남부-토마슈프 루벨스키 북부 18.5km 구간의 공정률이 9%에 그치는 등 공사가 사실상 정체되자 시공사 Kolin에 28일 내 인력·장비 투입 및 공사 속도 제고를 요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8.225억 즈워티 규모 계약의 시공사 귀책에 따른 해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

○ **Polimex·Hochtief 컨소시엄, CPK 여객터미널 건설 입찰 참여 철회(10.8)**

- Polimex Mostostal과 Hochtief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약 1년간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에 참여해 온 CPK 여객터미널 건설사업

입찰 절차에서 철회하기로 결정

- CPK 사업은 행정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착공이 미뤄진 가운데, 후속 입찰 일정도 지연되고 EU 재원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사업 리스크가 확대

○ LX Pantos, 카토비체에 10.9만㎡로 규모 물류센터 구축 완료(10.7)

- 한국계 물류기업 LX Pantos는 폴란드 카토비체에 연면적 10.9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완공, 약 1.4억 유로가 투입된 이번 시설은 5개 건물로 구성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및 한국 국토교통부 정책펀드 PIS No.2와 공동으로 인수·개발
- 상부 실레지아 지역에 위치해 도로·철도·항공망과 연계되고 독일·우크라이나 및 유럽 남·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축에 접근 가능
- LX Pantos는 동 물류센터를 동유럽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자동차부품·소비재·가전 등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지원 및 동유럽 물류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

○ 폴란드, 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난방 활용 확대 전망(10.7)

- 폴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할 경우, 회수 가능한 열이 2030년 현재 지역난방 공급량의 7% 이상, 2035년에는 최대 16%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 데이터센터는 연중 지속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폐열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Kernel, 전쟁 피해 인프라 복구에 약 40백만 달러 투자(9.25)

-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물류 인프라 복구에 약 40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생산 및 농산물 수출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복구할 계획

○ EU, Ukraine Facility 통해 우크라이나에 약 30억 유로 지원 승인, 노르웨이도 약 92백만 유로 신규 참여(9.25)

-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조건 10개를 충족함에 따라 Ukraine Facility의 제8차 정기 지원금으로 약 30억 유로를 승인했으며, 이 중 약 8억 유로는 처음으로 Ukraine Support Loan을 통해 지원
- 우크라이나는 Ukraine Facility 출범 이후 총 95개 이행 조건 중 84개를 완료했으며, 이번 지원금 집행 이후 2024년 중반부터 수령한 누적 지원액은 320억 유로를 넘어설 전망

○ Teofipol Energy, 우크라이나 최대 바이오메탄 플랜트 가동 후 헝가리 수출 개시(9.25)

- Teofipol Energy는 2026년 초 가동한 흐멜니츠키 지역 바이오메탄 플랜트에서 생산한 약 45,000㎥를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망을 통해 헝가리로 첫 수출
- 이번 수출로 Teofipol Energy는 Vitagro·MHP·Hals Agro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가스관을 통한 바이오메탄 수출에 참여한 기업이 됨

○ 독일계 GDS, 보리스필 주거단지 'WELTON' 개발 착수(9.25)

- 독일계 개발사 GDS(German Development Standards)는 키이우 인근 보리스필 지역에 21ha 규모의 주거단지 WELTON을 공식 출범
- 에너지 효율형 주택·안정적인 가스 및 전력 공급·지하수 기반 중앙 급수 등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5~20년을 고려한 장기 개발을 통해 지역 인프라 현대화와 투자 유치, 주변 부동산 가치 제고 추진

○ DTEK Grids, 전력망 현대화 투자 계획 발표(9.28)

- 우크라이나 전력 배전기업 DTEK Grids가 키이우시와 키이우·오데사·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3개 주의 전력 배전망 개발·현대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240억 흐리우냐 투자계획을 수립
- 투자금은 신규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기존 전력 인프라 재건·현대화, 전력망 자동화,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등에 투입될 예정

○ EIB, 인프라 재건을 위해 대규모 금융 동원 추진(9.25)

- 유럽투자은행(EIB)이 우크라이나의 교통·디지털·에너지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 동원을 목표로 주요 금융 프로그램을 준비 중

- 대기업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2.3억 유로 규모의 보증을 확보했으며, 20백만 유로의 보조금과 EIB 자체 금융을 결합해 최대 8억 유로 규모의 금융 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또한 우크라이나 은행들과 중소기업 대상 부분 포트폴리오 보증을 추진해 2026년 말까지 추가 5억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할 계획
- EIB는 우 재건을 위한 지분투자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초의 인프라 지분펀드인 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에 50백만 유로를 출자. 해당 펀드는 EBRD·IFC·EIB 등 주요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약 2억 유로의 투자약정을 확보
- EIB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총 45억 유로의 금융을 제공함

○ 오데사주, 29개 정착촌 대상 600km 규모 상수도망 구축 추진(9.25)

- 오데사주에서 29개 정착촌, 약 6.8만명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2건의 대규모 상수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약 218km의 주요 송수관과 385km의 배수·분배망 등 600km 이상의 수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첫 번째 사업은 11개 정착촌 약 1.98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송수관 84.06km와 배수망 180.29km를 건설하고 일일 최대 5만㎥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예정, 현재 취수시설·펌프장·송수관·수로 및 각종 관정과 부대시설 건설이 진행 중
- 두 번째 사업은 18개 정착촌 4.86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요 송수관 133.94km와 배수망 204.4km를 구축하고 일일 16,580㎥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4단계 펌프장과 정수저장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굴착·기초공사·방수 및 철근공사 등이 진행

○ 오데사, 이탈리아·UN 지원으로 탈탄소화 지원센터 개소(9.25)

- 오데사 중심부에 에너지효율·분산형 발전·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탈탄소화 사무소 개소,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까지 사업 발굴·자문을 제공할 예정

- 이번 사업은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효율·에너지절약청이 추진하고 이탈리아 정부(주우크라이나 이탈리아대사관·AICS)와 UN 환경계획(UNEP)이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로마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항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재건·탈탄소화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 2027년 재건사업 포트폴리오 400억 달러 구축 목표(9.29)

-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부가 2027년 재건사업 포트폴리오를 약 400억 달러 규모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전쟁위험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투자 위험분담·완화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2027년 FDI 약 5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제시
- 이와 함께 규제 완화 및 기업의 행정 부담 축소도 추진하며, 검토 대상 1,353개 규제수단 가운데 현재까지 350개 이상을 폐지, 향후 추가로 58개 인허가 폐지, e-Permit 시스템 도입, 147개 인허가의 신고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

○ 리비우시·EBRD, 전력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전기교통 인프라에 21백만 유로 투자협약 체결(9.28)

- 우크라이나 리비우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약 21백만 유로 규모의 전기교통 시스템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 전력 공급 중단 상황에서도 트램·트롤리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전기교통 인프라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사업을 통해 20개 견인변전소와 3개 차량기지를 통합 전력망으로 연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전기교통 시스템이 최대 7.5시간 자립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UNDP, 전력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5년간 금융·조정 플랫폼 출범(9.29)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Ukraine Energy Installation Facility(UEIF)를 출범, 국제사회가 지원한 전력설비를 실제 전력망에 신속히 연결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준공 단계의 자금조달과 사업 조정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 운영
- UNDP는 UEIF가 장비 지원과 실제 전력·난방·용수 공급 복구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전력 인프라 복구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높이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

○ 우크라이나, 철도운송 시장 민간사업자 개방 추진(9.29)

- 우크라이나 정부가 철도운송 시장에 민간 투자자 및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을 추진, 정부는 화물·여객 철도운송의 경쟁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로드맵을 승인했으며, 화물과 여객 부문의 시장 개방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
- 개혁안에 따르면 계엄령 종료 또는 해제 후 3년 이내에 국영 철도기업 Ukrzaliznytsia를 철도 인프라 운영사와 독립적인 여객·화물 운송사 등으로 분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철도운송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
- 철도시장 개혁은 EU 및 국제금융기관의 지원과도 연계. EU·유럽투자은행(EIB)·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Ukrzaliznytsia에 대한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며, 특히 EBRD의 180백만 유로 대출에는 EU의 Ukraine Investment Framework를 통한 44백만 유로 규모 투자보조금이 포함됨

○ 우크라이나 EFI Group, 르주제프스키-란츠코론스키 궁전 복원에 15백만 유로 투자 추진(9.30)

- EFI Group은 르비우주에 위치한 Rzewuski-Lanckoroński Palace 재개발을 위해 약 15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호텔·레스토랑·스파와 함께 행사장 및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
- 우 문화부, 르비우주 행정부 및 Novyi Rozdil 시의회와 5년간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행사장과 교육·문화센터를 통해 전시·교육

프로그램·연구 등을 운영하고 우크라이나-폴란드 간 문화교류도 지원할 계획

○ **Ukrnafta 분산형 발전설비 위해 Deutsche Bank로부터 유로 차관(9.30)**

-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영 석유·가스기업 Ukrnafta의 4개 사업장에 약 60MW 규모의 가스엔진 분산형 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Deutsche Bank로부터 45.75 백만 유로를 차입하는 조건을 승인했으며, 핀란드 수출신용기관 Finnvera가 해당 대출을 보증

○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 위해 태양광·ESS 확대(9.30)**

-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발전설비의 최대 50%(27GW 이상)가 손상·파괴된 가운데, 전력시스템 복구를 위해 약 10GW의 신규 발전용량이 필요한 상황
- 2026년 중반 기준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9.4~9.7GW에 달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최대 1.1GW가 신규 가동되는 등 자가소비 목적의 분산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
- 배터리 ESS도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9GWh가 신규 설치됐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6~1.9GWh가 추가된 것으로 추정

○ **EU 내 바이오메탄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 접근 규제 완화 추진(10.1)**

-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의 탈화석연료 전환에 따른 바이오메탄 수요 확대에 대응해 EU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및 EU 지속가능 연료 추적 시스템 편입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0년까지 EU 역내 바이오메탄 생산 목표(연 350억㎥)에 자국산 바이오메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탈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를 주요 시장으로 주목

○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EBRD에 6억 유로 규모 금융지원 요청(10.1)**

- 우크라 정부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겨울철을 앞두고 심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기업 지원 및 전력 수급조정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6억 유로 규모의 금융수요를 제시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원을 요청

- 한편 우크라 정부는 2026~2027년 재정수요 대응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전쟁위험 보험 지원 방안을 2027년 예산안에 제안하고 EBRD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전후 복구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

○ 우 국영은행, 키이우 Gulliver 복합단지 매각 경매 무산(9.30)

- 국영 Oschadbank과 Ukreximbank이 추진한 키이우 Gulliver 쇼핑·오피스 복합단지 매각 경매가 입찰자 부재로 무산

- 매각 대상은 총면적 151,805㎡ 규모의 쇼핑·오피스 복합단지와 주차장, 총 1.25ha 규모의 토지 2필지이며, 시작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92.36억 흐리우냐

○ Naftogaz, EIB 지원으로 탈탄소화 전략 채택(9.30)

-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가 유럽투자은행(EIB) 지원을 받아 새로운 탈탄소화 전략을 채택하고,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

- EIB는 EU4U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8개월간 40만 유로 규모의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해 Naftogaz의 기후목표 및 배출 감축 방안 수립을 지원

- EIB는 2025~2026년 EU 집행위의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 지원을 바탕으로 Naftogaz에 약 5억 유로의 금융을 제공해 가스 구매 및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일본에 체르노빌 원전 손상된 신안전밀폐시설 복구 지원 요청(10.1)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손상된 체르노빌 원전의 신안전밀폐시설(New Safe Confinement) 복구를 위해 일본의 지원과 기술 협력을 요청

-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에너지장관은 일본 중의원 의원 및 주우크라이나 일본대사 등과 만나 신안전밀폐시설 복구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 키이우주, 18백만 달러 규모 Skvyra 산업단지 등록(10.2)

- 키이우주에 약 32ha 규모 Skvyra Industry 산업단지가 등록됐으며, 약 18.05백만 달러 투자 유치와 1,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금속가공, 전기장비·기계 제조, 식품 생산, 과학·기술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재원은 사업시행자·입주기업·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
- 우크라이나 내 등록 산업단지는 총 126개로 증가했으며, 경제부는 올해 9개 산업단지에 약 12.50백만 달러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승인
- 자카르파티아주는 기존 12개 산업단지에 3곳을 추가할 계획이며, 우주호로드·후스트·스발리아바 등에서 생산시설 건설이 진행 중
- 반면 키이우주의 Bila Tserkva 산업단지는 안보 우려로 3개 공장 건설 계획이 연기되는 등, 산업단지 확대에도 전쟁 리스크가 실제 투자 집행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 EU, 우크라이나와 공동 방산사업에 약 200억 유로 규모 SAFE 대출 여력 활용 검토, 방산·재건 지원 확대 추진(10.2)

- EU 집행위는 사용되지 않은 SAFE 대출 여력 약 200억 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및 EU 회원국 간 공동 방산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Andrius Kubilius EU 국방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산 혁신 역량을 EU 생산 및 군사능력 강화에 활용하는 공동 프로젝트 공모를 제안
- 우크라이나는 올해 국방예산에서 약 230억 유로 부족분이 발생했으며, NATO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약속된 4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지원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재정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됨
- 다만 EU 집행위와 우크라이나는 '26년 10월 1일 예산 및 국방수요를 충당할 재원 확보에 합의, 실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완료필요

○ 우크라이나-세계은행, 약 59억 유로 규모 관개시설 복구·개발 투자 프로그램 추진(10.2)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와 세계은행이 관개시설 복구·현대화를 위한 Master Plan을 마련하고, 분석·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사업 실행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
- Master Plan에는 약 91.3만ha의 관개시설 개발·복구를 위한 25개 우선 사업이 포함되며, 전체 투자 필요액은 약 59억 유로로 추산
- 오데사주 관개시스템 현대화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RIVERS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약 1억 달러 규모
- RIVERS는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로·펌프장·수문·저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자동화 및 에너지 자립 기술을 도입할 계획

○ 우크라이나·독일, 방산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위한 14개 협력 문서 체결(10.5)

-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키이우에서 열린 양국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방산·에너지·무인체계·방위산업 분야 14개 협력문서를 체결하며 전략적 산업 협력을 확대
- 방산 분야에서는 IRIS-T 미사일 및 발사대 수천 기 도입, HENSOLDT 전술·정찰 레이더 구매, Shahed 드론 대응용 요격드론 시험·구매 등이 추진되며, 독일·우크라이나 기업 간 드론 및 지상 무인체계 공동 개발·생산 협력도 확대
-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Naftogaz와 Siemens Energy, 전력망 운영기관 Ukrenergo와 독일 송전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분산형 발전·에너지저장·전력망 및 변전소 현대화·가스 인프라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
- 독일은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에 5.57억 유로 이상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총 기여 규모가 8억 유로를 넘어설 전망

○ 우크라이나, EU 337억 유로 지원 확보 위해 개혁 이행 필요(10.5)

- 우크라는 2026년 잔여 기간 동안 총 337억 유로 규모의 EU 재정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국방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당 부분의 자금 집행을 위해 EU가 요구한 개혁 과제 이행이 필요한 상황

- 예산지원의 추가 집행을 위해 소액 국제우편물 과세, 디지털 플랫폼 소득 과세, 정치적 주요인물(PEP)에 대한 금융 모니터링 등 미완료 개혁 과제의 이행이 요구되며, 우크라이나는 국방비 부족분을 국내 재원·지출 조정 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계획

○ 미·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에너지·핵심광물 사업에 60백만 달러 이상 투자 승인(10.5)

- 미국·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URIF)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60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향후 최대 8.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민간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
- 광물 분야에서는 BGV Group Management와 우크라이나 내 초기 단계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설립하고 약 30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희토류·베릴륨·지르코늄 등 핵심광물 개발을 우선 추진
-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 단위 열병합발전(cogeneration) 플랫폼에 지분 투자를 실시해 전쟁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훼손된 지역을 포함한 수천 가구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에너지 허브 구축을 지원
- 또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함께 DTEK의 200MW/400MWh 규모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6개 지역에 구축된 에너지저장시설의 운영 및 전력망 안정화를 지원

○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민간기업 지원 위해 2027~2030년 3.5억 유로 추가 투자(10.5)

- 노르웨이 정부는 개발금융기관 Norfund를 통해 2027~2030년 우크라이나 민간부문에 3.5억 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투자기금의 누적 배정·예정 규모는 약 4.43억 유로로 확대
- Norfund는 건당 5백만~50백만 유로 규모의 대출 및 지분투자를 제공, 2027년 약 70백만 유로를 시작으로 2028~2030년에는 매년 약 93백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
- 투자 대상은 건설 준비가 완료된 재생에너지 사업,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제조업·농업기업,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은행 등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

- Norfund는 2024년 설립된 우크라이나 투자기금을 운영하며 Lviv M10 산업단지 확장 등에 초기 투자를 진행한 바 있어, 다년간 재원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민간 부문 투자 지원을 지속 강화할 전망

○ 우크라이나, 전력망·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분야 116백만 달러 투자계획 승인(10.5)

- 기후투자기금(CIF) 이사회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국경 간 전력연계망,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6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승인
- 초기 투자금 70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6.2백만 달러를 추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며, 세계은행그룹·EBRD·민간부문 등으로부터 최대 693.8백만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함

○ 아제르바이잔 ATEF, 우크라이나 자카르파티아주에 66.7백만 달러 규모 전력장비 공장 투자 추진(10.6)

- 아제르바이잔 전기장비 기업 ATEF Group이 우 서부 자카르파티아주 후스트(Khust)에 약 66.7백만 달러를 투자해 전력 인프라 장비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약 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우크라이나 데무린스키 티타늄 광산공장, 외국기업 2곳 인수 관심, 40.5백만 달러 민영화 경매 추진(10.6)

- 우크라 국유재산기금(SPF)에 따르면 외국기업 2곳이 Demurinsky 광산·선광공장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오는 10월 20일 약 40.5백만 달러의 시작가격으로 100% 지분 민영화 경매가 진행될 예정

○ 스위스, 우크라이나 에너지·교통·수자원 분야에 135백만 스위스프랑 지원, 기업 투자 연계 재건 추진(10.5)

- 스위스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8개 프로젝트에 총 135백만 스위스프랑(CHF)을 지원하기로 승인
- 지원 대상은 에너지, 대중교통, 수자원 관리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과 직결된 3개 전략 분야로, 전쟁 중에도 경제활동과 필수 인프라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이번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보유한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개별 사업 규모는 3백만~30백만 스위스프랑 수준
- 선정 기업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를 자체 자금으로 공동 부담, 우크라·스위스 양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기준과 우크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

○ **우크라이나 자카르파티아 6MW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10백만 유로에 매각 추진(10.7)**

- 우크라 자카르파티아주 소재 6MW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CHP)가 10백만 유로에 매각 추진 중이며, 매각과 함께 목재가공·에너지저장·추가 발전사업 파트너도 모집
- 발전소는 건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전력망과 연계된 상태로, 약 0.5ha 부지에 위치하며 인접 토지를 포함해 향후 8ha 규모로 확대할 계획

○ **EU,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방침 유지(10.7)**

○ **오데사, 이탈리아 AICS와 에너지·기업·투자 프로젝트 협력 논의(10.7)**

- 오데사 지역개발청은 이탈리아 개발협력청(AICS)과 지역 복구, 에너지 회복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주요 협력 분야로 피해 인프라 복구, 지역사회 제도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사회통합 및 국제개발사업 등이 제시

○ **EBRD,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1.8억 유로 대출 중 1.3억 유로 긴급 용도 전환 허용(10.7)**

- EBRD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Ukrzaliznytsia와의 대출계약을 개정해 기존 180백만 유로 대출 중 130백만 유로를 유동성 지원 및 긴급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분산형 발전사업에 배정된 자금을 철도시설 긴급 수리·인프라 복구,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유지 등에 전환 가능

○ **우크라이나 국유 오데사 항만공장, 10월 19일 민영화 경매 추진(10.8)**

- 우크라 국유재산기금(SPFU)은 오데사 항만공장(Odesa Port Plant, OPP) 지분 99.5667%에 대한 전자 민영화 경매를 10월 19일 개최할 예정
- 이번 매각은 2025년 11월 예정됐던 기존 경매가 입찰자 미등록으로 무산된 이후 재추진되는 것으로, 당시 시작가는 약 44.9억 흐리우냐였음

○ **ArcelorMittal,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 제철소 피격으로 약 10억 달러 손상차손 전망(10.7)**

- ArcelorMittal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Kryvyi Rih) 제철소의 생산설비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비현금성 손상차손(non-cash impairment)을 인식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동향

1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ㅇ(**주요동향**) '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안)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KIND, EUR 7.5백만) 입금완료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5.04억
- (**사업기간**) 2026.11.~2054.12. (건설 37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11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12월 COD

ㅇ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2,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id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10월初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10월中 법인인수(설립)
'26년 10월末 SPA 체결(KIND PL↔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2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준공식* 개최(9.9)

* KIND, LX판토스, 해진공 참석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 ㈜아이티코어스, ㈜영국씨앤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완료(9.6.~9.12.)
  '26.11월 현지 ITS 실증 출장 예정
  '26.1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ㅇ **(주요동향)** 루블린 공무원 대상 국내 초청연수 완료(9.6.~9.12.)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KCN 사업대상지 방문 예정(10.22.)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10.2. (232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4.27., 화상회의)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7. 19.~7. 25.)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9.15, 화상회의)

ㅇ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7.19.~7.25), 최종보고회(9.15)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완 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완 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추진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완 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도노선 고속화 등 (추진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